

축 사

절기는 무상(無常)하여 어느새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맞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대망의 2013년이 열리고, 국가도 개인도 새로운 계획과 희망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간에 대한불교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에 장도정(張道正) 스님께서 취임하시니 천태종은 물론 우리 종단협의회에도 신선한 새 기운이 물씬 들어차는 듯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후덕함으로 새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조용한 가운데 새 생명의 씨앗을 품어 기르는 계절이니, 새로움이란 바로 겨울의 정중동에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천태종은 장도정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기연(奇緣)을 돈발(敦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종단의 화합과 수행풍토 진작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만큼 천태종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과 광도중생(廣度衆生)의 발원이 성취되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천태종의 역동적인 기상은 바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선연(善緣)으로 승화될 것이며 그로써 애국

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가 중생계에 아름답게
회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태종은 종단협의회와 한중일 3국의 불교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장도정 스님
께서도 천태종의 대외적인 활동 폭을 더욱 넓혀 한국불교
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불교는 찬란한 전통을 슬기롭게 계승하며 시대의 변화
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학자들은 세상
을 향해 문화와 예술은 물론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끌어가
는 지혜를 두루 제공하는 한국불교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한국불교의 위상은 어느 한 종단만의 노력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협의회가 한국
불교 발전의 구심체가 되고 있는 것이며, 천태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앞둔 좋은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장도정 스님께 다
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천태종과 한국불교 전체
가 더욱 발전하여 정토가 구현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2월 2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합장